

	보도설명자료	
	배포일시	2019. 11. 19.(화) / 총 1매(본문 1)
국토교통부	담당자	• 주택정책과장 이명섭, 사무관 임유현 • ☎ (044) 201-4129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 관리 기조에 힘입어 서울 다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습니다.

- 금일 「통계청 2018년도 주택소유통계」 발표 관련 -

□ 그간 8.2 및 9.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'18년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 가구('17년 52.5만→'18년 52만가구) 및 비중이 감소(28.0%→27.6%)하였고,

* 다주택자 규제 : 양도세 중과('18.4), 주담대 제한('18.9), 증부세 강화('18.9) 등

○ 개인 기준으로도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(16.0→15.8%)하였습니다.

< 서울(거주지 기준) 주택 2건 이상 소유가구(만가구) 및 소유자 추이(만명) >

	'12	'13	'14	'15	'16	'17	'18
가구 (전체 소유가구 중 비중)	-	-	-	50.2 (26.7%)	52.1 (27.9%)	52.5 (28.0%)	52.0 (27.6%)
개인 (전체 소유자 중 비중)	30.0 (13.1%)	31.2 (13.5%)	32.9 (14.0%)	35.5 (14.9%)	37.3 (15.5%)	38.9 (16.0%)	38.9 (15.8%)

* 자료 :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각 년도

○ 또한,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('17년 7.0%→'18년 3.4%) 및 다주택 가구(4.1%→2.4%)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.

* 전국 다주택자(주택 2건 이상 소유자) 전년대비 증가율 :

(개인) '13) 3.8% ('14) 1.6% ('15) 9.2% ('16) 5.4% ('17) 7.0% ('18) 3.4%

(가구) '16) 6.2% ('17) 4.1% ('18) 2.4%

□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, 투기 근절,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서울특별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유현 사무관(☎ 044-201-412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	---